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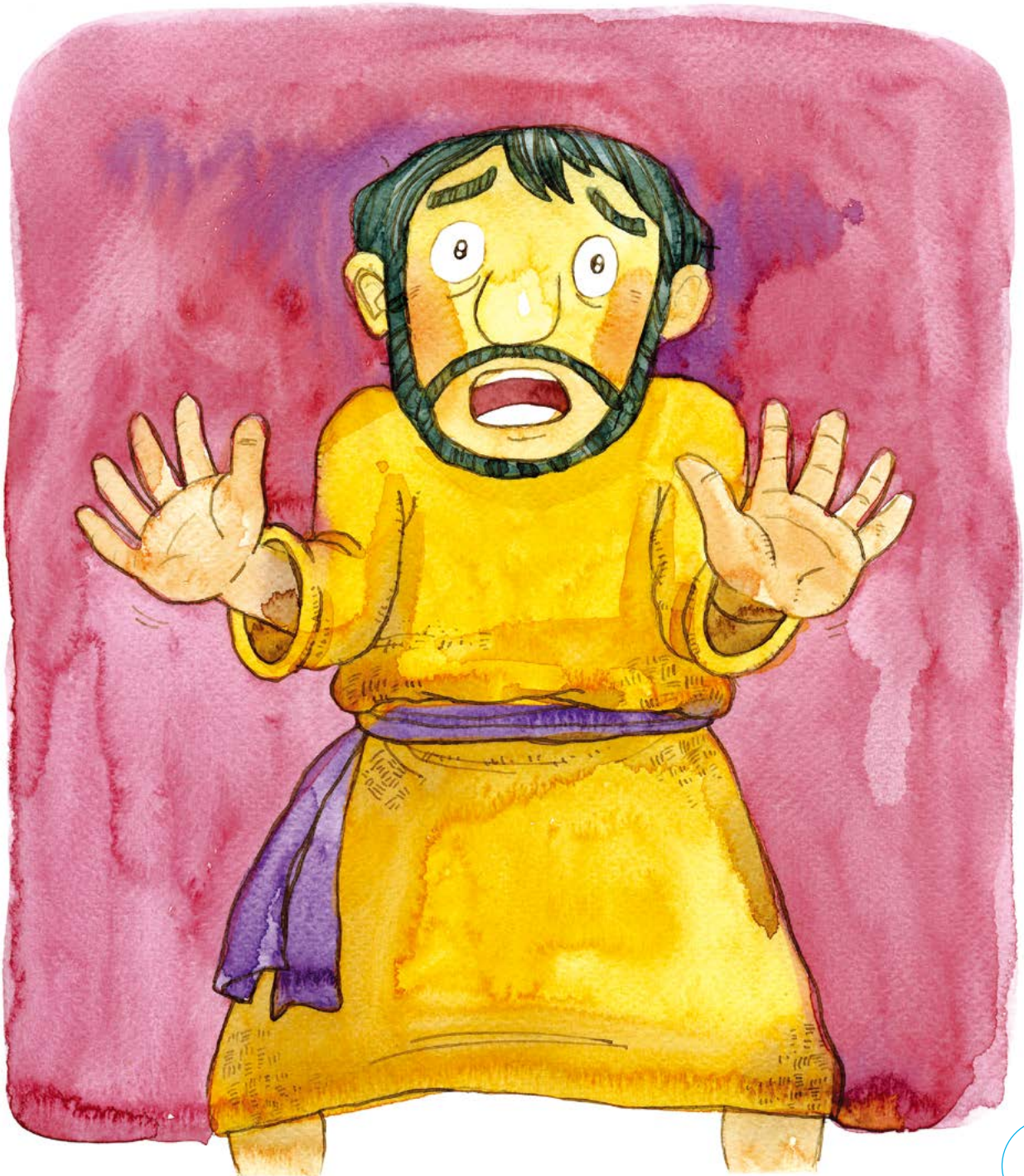
36과 발을 씻기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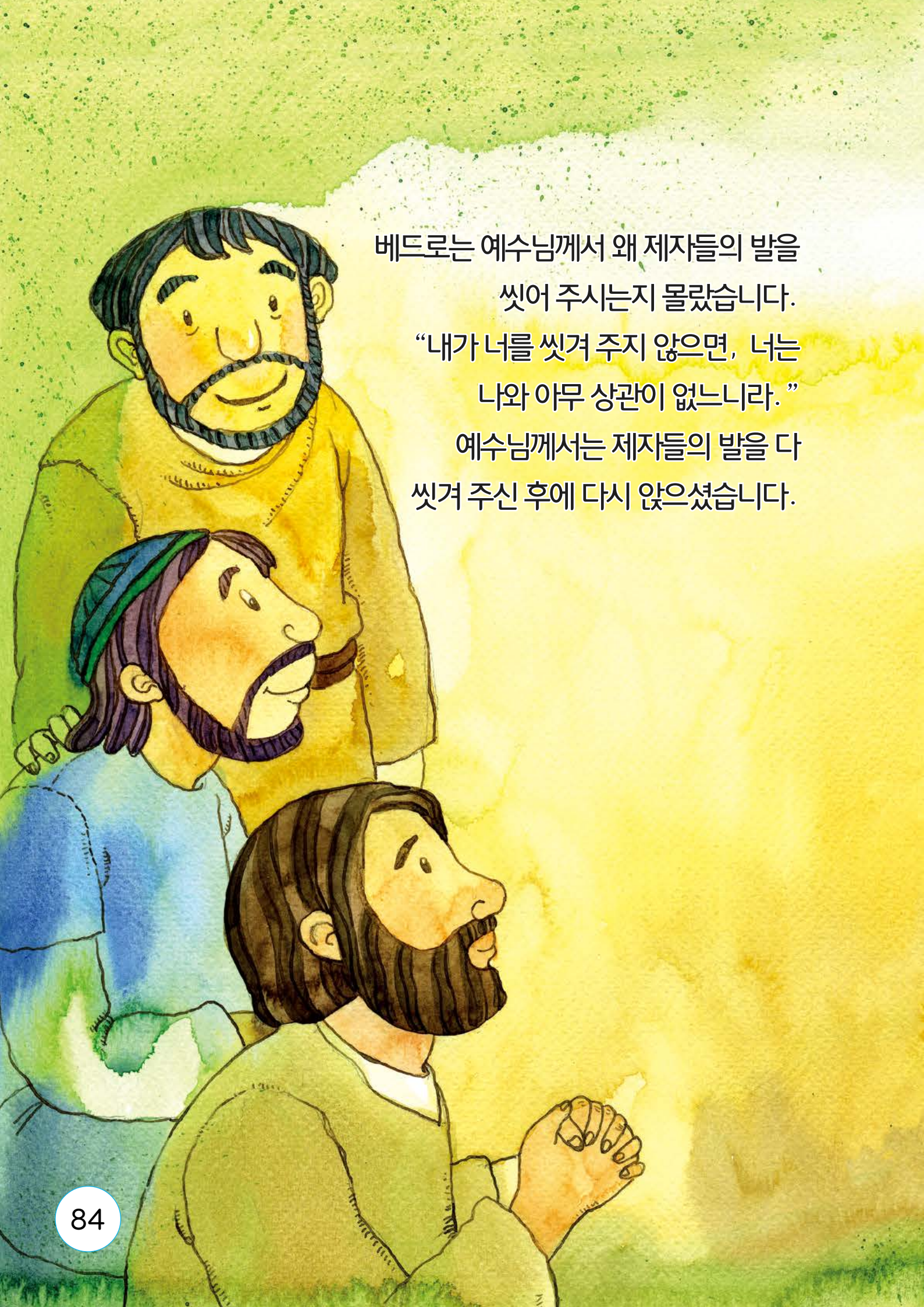


유월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왕이 되시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무슨 소리,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나라구. 높은 자리는 내 거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제 발을 씻겨 주실 수는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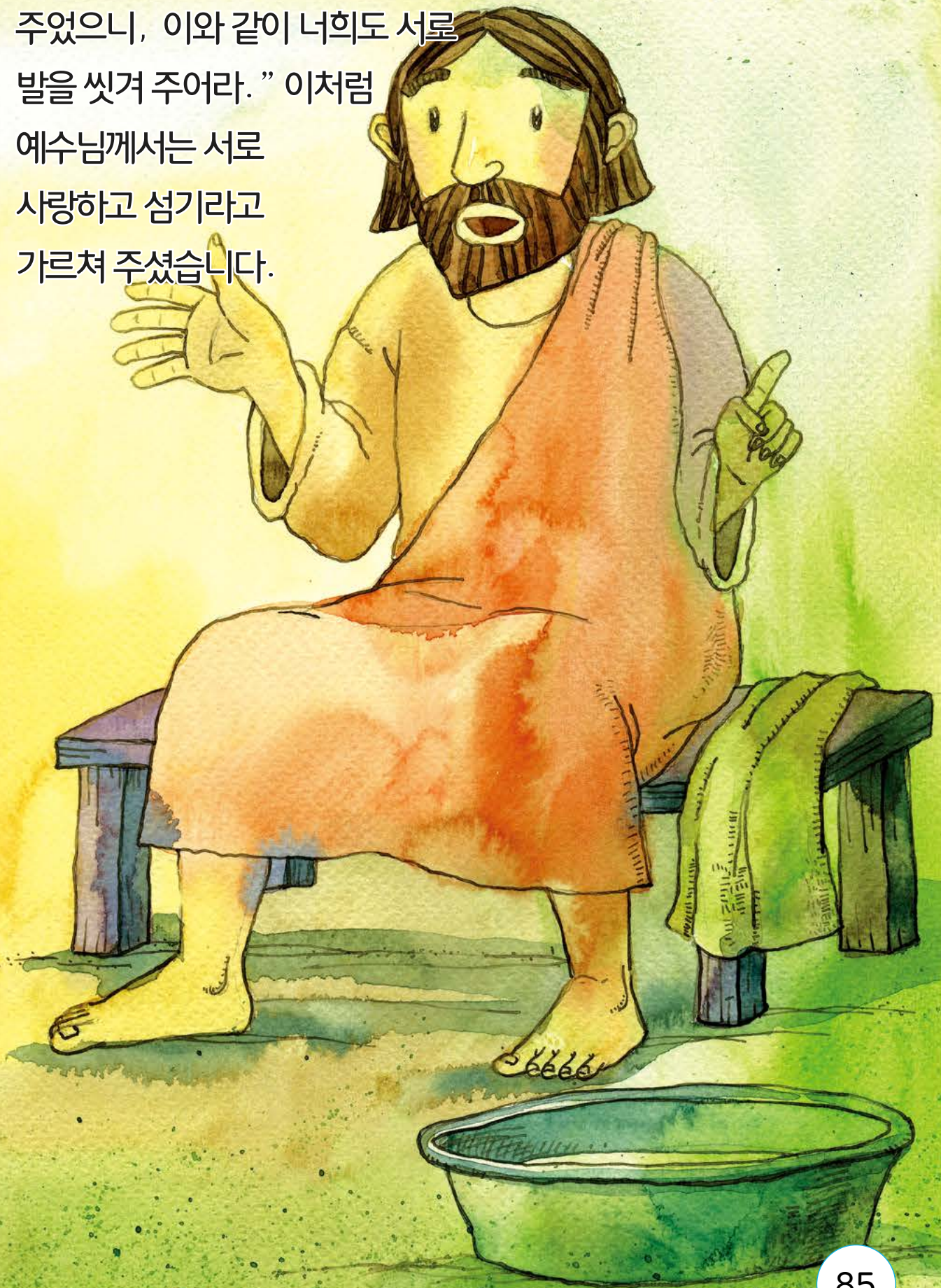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후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제해요

1.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느 곳을 씻어 주셨나요? ()



① 손



② 얼굴



③ 발

2.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나요?

3.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은 친구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 보세요.

.....

.....

.....

.....



“내 ¹⁾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¹⁾계명: 지켜야 할 명령

암송

암송을 따라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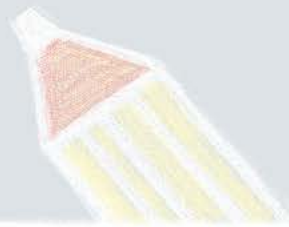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기도하는 어린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친구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 줄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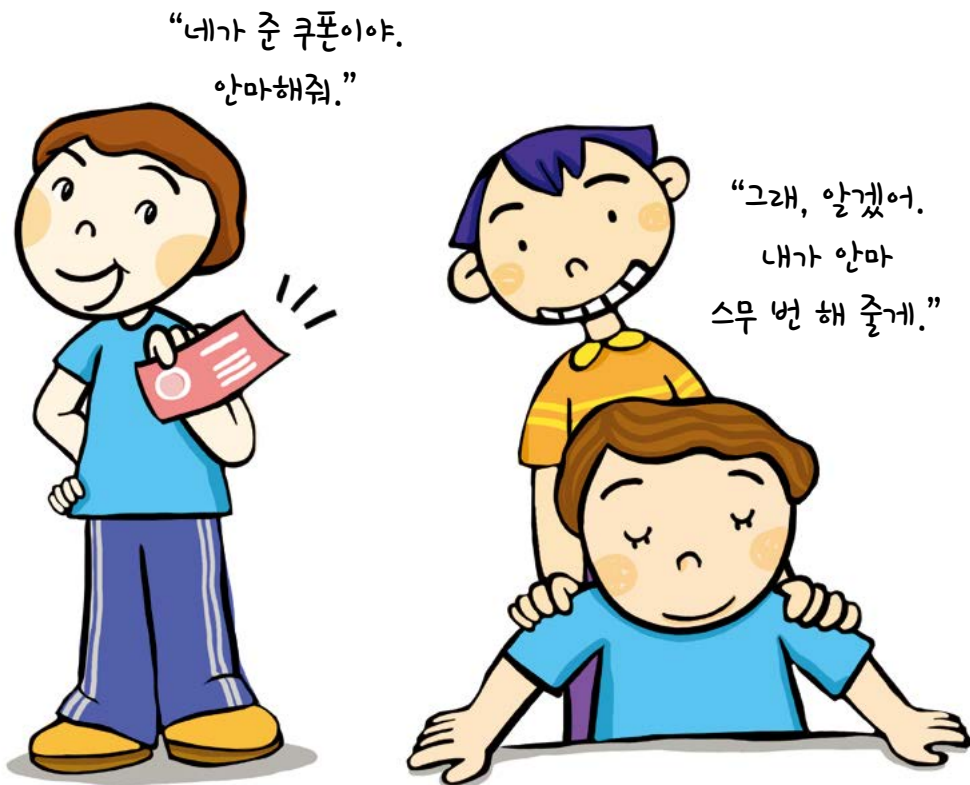
나의
기도



쿠폰 만들기

아래의 내용대로 다음 쪽에 있는 쿠폰을 완성해 보아요.

- ① 옆에 안마쿠폰에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 ② 쿠폰을 가위로 잘라서 분반 친구들 모두에게 한 장씩 줍니다.
- ③ 분반 친구가 내 이름이 쓰여진 쿠폰을 주면 나는 쿠폰에 쓰여진 대로 친구에게 해 줍니다.





안 마 쿠폰

_____ 는 이 쿠폰을 주는 친구에게
안마 _____ 번을 해 주겠습니다.



안 마 쿠폰

_____ 는 이 쿠폰을 주는 친구에게
안마 _____ 번을 해 주겠습니다.



안 마 쿠폰

_____ 는 이 쿠폰을 주는 친구에게
안마 _____ 번을 해 주겠습니다.



안 마 쿠폰

_____ 는 이 쿠폰을 주는 친구에게
안마 _____ 번을 해 주겠습니다.



안 마 쿠폰

_____ 는 이 쿠폰을 주는 친구에게
안마 _____ 번을 해 주겠습니다.



안 마 쿠폰

_____ 는 이 쿠폰을 주는 친구에게
안마 _____ 번을 해 주겠습니다.



안 마 쿠폰

_____ 는 이 쿠폰을 주는 친구에게
안마 _____ 번을 해 주겠습니다.



안 마 쿠폰

_____ 는 이 쿠폰을 주는 친구에게
안마 _____ 번을 해 주겠습니다.



안 마 쿠폰

_____ 는 이 쿠폰을 주는 친구에게
안마 _____ 번을 해 주겠습니다.



안 마 쿠폰

_____ 는 이 쿠폰을 주는 친구에게
안마 _____ 번을 해 주겠습니다.

친구를 기쁘게 해요

분반에서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친구의 이름을 적으세요.
여러 명을 적어도 됩니다.



친구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보세요.

A large, light blue rounded rectangle with a black outline. Inside the rectangle are three horizontal white lines, providing space for writing down actions to make friends happy.

적은 대로 친구에게 해 주세요.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들에게 잘 대해 주세요.